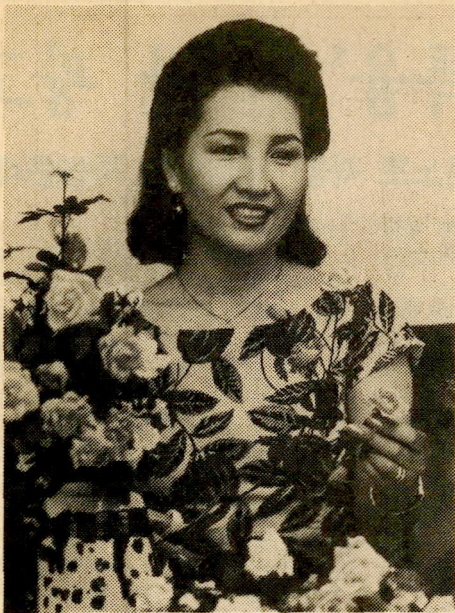




주부 문예지씨

‘불혹’ 넘은 나이에 연기자 새 삶

20여년간 “집 귀신”..전원일기 출연 14마디 대사

45살에 텔러트로 데뷔한 문씨는 “새롭게 시작한 일로 삶을 재미있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좋아한다. <이정우 기자>

새롭게 시작하다

①

주부 문예지(45·본명 문삼배·서울 강남구 개포동)씨는 요즘 사는 게 너무 신나고 재미있다. 중년의 위기가 슬그머니 찾아온다는 45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그는 지난 2일 텔레비전 연기로 데뷔했다.

“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돼 여간 기쁘지 않아요. 결혼 뒤 ‘뭔가 해야지’ 하는 마음을 1분도 멈춘 적이 없는데 이제서야 하게 된거죠.”

이화여대 무용과(발레 전공)를 나온 문씨는 대학교를 졸업한 지 꼭 한달 만에 결혼해 결혼 시부모 모시고 남편과 세 자녀를 뒷바라지 해온 전업주부. 그래서 그는 자신을 “집귀신이였다”라고 표현한다.

지난해 큰딸이 재수 1년을 거쳐 이화여대 미대에 진학한 뒤 ‘내가 어느새 40대 중반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위기의 나이’임을 실감했다고 문씨는 털어놓았다.

“원샷까지도 뭔가 해야지를 되뇌인다면 나 자신을 용납하지 못할 것 같더군요. 아이

자신에게 잘 맞지 않거나 비주체적으로 선택된 일을 타성에 젖어 계속하기보다는 용기 있게 자기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다시 시작한 일로 신명나게 사는 사람을 만나본다. <편집자>

들 성취가 나의 성취도 아니고, 며칠 동안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문득 ‘연기자가 나한테 잘 어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릴적부터 ‘배우해도 되겠다’는 소리를 무척 많이 들으며 컸거든요.”

‘뭔가 해야지’의 답을 ‘연기자가 되는 것’으로 찾은 문씨는 지난해 11월 문화방송 부설 방송문화원 1기생으로 등록했다. 연기자가 되기 위해 방송문화원 6개월 교육과정을 시작하겠다는 그에게 남편 김중연(54·사업)씨는 “절대로 안된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문씨는 “나도 이제 내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으니 이해해달라”고 설득해 간신히 동의를 얻었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고3이 되는 아들이었다. 오랜 생각 끝에 올초 아들과 약속했다.

“우리 서로 열심히 노력해서 연말 안에 원하는 것을 꼭 이루자. 너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엄마는 연기가 되는 거다.”

그러나 그는 너무 빠르게 아들을 앞지르

고 말았다.

파출부도 안쓰고, 아침·저녁밥과 빨래만 겨우 하며 6개월 동안 방송문화원을 오가던 그는 지난달 23일 수료식과 동시에 문화방송 인기드라마 <전원일기> 팀에 뽑혀 읍내 불고기식당 주인 아주머니로 전격 출연했다. 최불암·김혜자씨 등 최고 연기자들과 호흡을 맞추며 연기한 그는 “생활 속의 이야기들이라 그다지 힘들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단 열네마디의 대사를 위해 며칠밤을 새우고, 청소·설거지할 때도 대본을 옆에 두고 할 정도로 열심히 외워 “첫 출연인데도 자연스럽다”는 평을 들었다. 그렇지만 지난 2일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본 자신의 연기는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연기하겠다”고 문씨는 새로 시작한 일에 대한 의욕이 대단하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작한 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더 늦기 전에, 지금 시작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45살에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고, 이렇게 신명나게 살 수 있으니까요.”

늦깎이로 텔레비전 연기가 된 문씨는 연기의 유연성을 위해 한국무용을 배울 계획도 세우고 있다. 주부 연기로 생활 속의 주부 모습을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자연스럽게 연기해보겠다는 그가 가장 하고 싶은 역할은 월북 무용가 최승희의 열정에 찬 삶 이란다. <신연숙 기자>